



EBS 신입사원이 되기까지

전익호 EBS 융합기술본부
제작기술부 조명팀 사원

안녕하세요. 2018 EBS 방송기술 신입사원 전익호입니다. 1월 29일부터 진행됐던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현재 융합기술본부 제작기술부에 배치되어 업무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채를 준비하며 꾸준히 보았던 <방송과기술>에 제 글이 실리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통해 제가 EBS 공채를 준비해왔던 과정을 한 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공채를 준비하게 된 계기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사 공채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전기전자전파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전공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해오기는 했지만 마땅히 졸업하고 하고 싶은 일이 없었습니다. 대학원도 고민해보다가 흐지부지되어 결정짓지 못했었고, 확고하게 가고 싶은 기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로 고민을 하던 중에 운 좋게 방송국 공개방송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날 공개방송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 제작, 송출 과정도 모두 전기전자 분야와 관계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방송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방송사 공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기술직 필기시험에는 통신시스템, 네트워크, 디지털회로, 아날로그회로, 컴퓨터언어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 전공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준비하는데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채 준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고 그해 겨울방학 때 기사자격증 공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서류전형

10월 26일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공개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류 합격을 위해선 어학점수와 자격증의 유무 같은 스펙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점수,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면접 단계에서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많은 질문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대포장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교육사항과 경험사항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경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교육사항 작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는 데에는 학교 전공강의 중 방송기술과 밀접한 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계열 전공강의를 들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필기전형

EBS 방송기술 필기전형은 딱히 정해진 틀이 없기도 하고 관련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기에 많이 막막했습니다. 필기전형은 1교시 '방송일반상식 및 직무지식', 2교시 '논술'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필기전형 1교시에는 총 30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되었고 상식문제와 전공문제가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전공시험은 기사시험 문제 풀이, 공무원 기출문제 풀이, 학교 전공 강의 복습을 통해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은 학교 전공 강의 복습이 제일 도움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전공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 중 하나는 머신러닝 기초 과정에 배우는 뉴럴 네트워크 weight update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가 출제될지는 상상도 못 했는데 학교 전공 강의 때 배웠던 내용이라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제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부분들보다는 물리 문제, 컴퓨터 언어 문제 등 오래전에 학교 전공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복기하면서 풀었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방송기술직 전공 시험의 경우 이렇게 공채마다 시험 스타일이 변하기 때문에 특정 형식에 얽매어 준비하기보다는 꾸준히 전공 관련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기도 했고 준비하기 애매하다 보니 애초에 저는 상식보다는 전공에 비중을 두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으로 최근 시사 이슈를 정리해서 틈틈이 보려고 노력했었고 상식 시험에 잘 출제된다는 상식 키워드들을 찾아서 따로 정리해두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상식, 사회적 제도에 관한 상식, 신기술 관련 상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2교시 '논술'이었습니다. 지금 이 수기를 쓰면서도 느끼지만 저는 글쓰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글을 잘 쓰지는 못하더라도 주어진 주제에 적합한 핵심 내용을 써 내려 갈 수 있도록 배경지식을 탄탄하게 쌓아두자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방송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나 업계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과기술 잡지를 꾸준히 읽고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

에 의해 방송 미디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잡지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술 주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이 출제되어 순조롭게 글을 써 내려 갈 수 있었습니다.

인성검사 및 1차 면접 전형

필기전형 이후에는 인성검사와 직무역량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직무역량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이전에 논술을 준비하며 정리해뒀던 최근 방송사의 이슈들을 다시 읽어보고 EBS에 접목할 만한 서비스들을 몇 가지 구상하여 정리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오전에 직무면접 과제 풀이와 인성검사가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오전에 풀이했던 과제를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자리마다 노트북이 놓여 있어서 살짝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 과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파워포인트는 최대한 깔끔하고 간결하게 만들었고 나름 PT를 어떤 식으로 할지 미리 구상하는데 시간을 조금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과제 풀이 이후에는 인성검사가 진행됩니다. 인성검사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그대로 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해당하는 선택지를 솔직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꼭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안배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후에 직무역량면접은 다대일로 진행되었고 PT 시간 5분, 질의응답 시간 5분 정도로 하여 총 1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 본인의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질의응답은 PT 내용에 관한 질문들도 있었고 지원자의 성격, 성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과 자기소개서에 관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최종면접

마지막 전형인 최종면접입니다. 최종면접을 준비할 때는 이전에 논술과 직무역량면접을 대비하여 정리해두었던 방송사 트렌드, EBS에 접목 시킬 만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다시 읽어보고 숙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과 전공 지식 관련 질문들을 따로 정리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최종면접을 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면접에서 지원자들이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이 질문에 답변할 때 충분히 가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답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대다로 진행된 면접은 30분에서 40분가량의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관한 질문, 신기술에 관한 질문, 입사 후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EBS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매우 다양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자의 역량, 열의, 성격, 입사 후 포부, EBS에 대한 관심도 모두 평가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종면접이 끝나고 결과 발표가 나기까지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를 보고 한동안 꿈일까 아닐까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기를 쓰고 나니 이제야 EBS의 일원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마치며

신입사원 연수가 시작됐던 1월 29일부터 약 두 달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생소한 것이 많긴 하지만 그만큼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이름이 프로그램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날을 고대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에 입사하였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자기 계발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업무를 통해 경험을 쌓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러 분야를 섭렵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EBS의 일원으로서 방송 기술이 방송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어느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